

林和 詩의 現實意識

김 병 택*

차 례

- I. 프롤로그
- II. 투쟁의식과 노동운동
- III. 계급의식과 시의 미학
- IV. 저항의식과 현실 주목
- V. 에필로그

1. 프롤로그

시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름다운 서정을 노래해야 한다는 시각과, 현실의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과 현실이 화해 관계에 있다고 보는 데에 비해, 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과 현실이 불화 관계에 있다고 본다. 또한 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의 내면세계와 시의 리듬·형식을 중시하는 데에 비해, 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인을 둘러싼 현실 세계와 시의 주제·내용을 중시한다. 이상적인 시의 형태로, 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순수서정시를, 후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현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여시를 각각 내세운다.

그러한 시각을 가능하게 한 원천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의 시적 신념이다. 다시 말하면 시인의 신념에 따라 순수서정시가 창작되기도 하고, 현실참여시가 창작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시적 신념은 대개의 경우, 매우 가변적이다. 한 문인이 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때에 그 점은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한 문인이 그 여러 분야에 동일한 신념을 적용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다. 임화는 그 흔하지 않은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임화는 고백적인 글 「어떤 청년의 참회」에서 “낡은 감상풍의 시를 버리고, 다다풍의 詩作을 시험했”¹⁾”라고 밝힌 바 있고, 「화가의 시」 「赫土」 「지구와 박테리아」와 같은 다다이즘 경향의 시를 쓰기도 했으나, 윤기정의 추천으로 카프에 가입한 이후에 발표한 시들은 예외없이 모두 참여시이다. 다른 분야는 제쳐두고 문학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 볼 때에도, 임화는 세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그는 카프의 서기장을 지냈던 문학운동가였고, 당대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문학비평가였으며, 탁월한 프로시인이었던 것이다. 동일한 신념이 그 세 분야를 관류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임화가 카프 해산 후에도 그 이전처럼 계속 순수문학을 비판한 점은 그가 문학과 사회에 대한 신념을 그대로 고수했음을 말해 준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모든 관념으로 불리우는 사회생활의 상층 건축과 더불어 사회적 생산 관계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으로, 그 의의는 사유의 형식이라는 데에 있다.²⁾ 그가 이러한 생각을 피력한 시기는 1940년이였다. 문학과 사회에 대한 그의 신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문학적 신념을 대단히 중시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임화 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게 한다.

지금까지 임화의 시가 현실의식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시의 현실의식이 다른 시

1)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文章』(1940. 2) 제2권 제2호, p. 23.

2) 임화, 「예술적 인식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p. 602.

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임화 시에 나타난 현실의식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 인용된 시들의 텍스트는 모두 김외곤 편 『임화 전집·1』(박이정, 2000)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II. 투쟁의식과 노동운동

임화는 먼저 2백만 프롤레타리아 대학살과 독일의 두 혁명가 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죽음³⁾에 집착한다. 그에게 있어서, 미국은 혁명 전사인 사코(Nicolas Sacco)와 반제티(Bartolome Vanzetti)를 사형에 처한⁴⁾ 나라이다. 그래서 『蠶-1927』에 의하면, 미국은 '인류의 범죄자/역사의 도살자'이며 '아메리카—부르주아의 정부'이다. 미국이 사코와 반제티의 처형에 '프롤레타리아트의 發電하

- 3) 칼 리프크네히트(1871~1919)와 로자 룩셈부르크(1870~1919)는 독일의 혁명가들로, 폴란드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쿠스團(Spartakusbund)을 설립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주의를 인간 본위로 해석하고, 국제 사회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대중혁명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는 1918년 가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독일혁명 이후의 혼란을 틈타 독일사회민주당 좌파와 손을 잡았으며, 1919년 1월 1일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독일공산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해 1월에는 베를린에서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 때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는 경찰과 연계된 극우 민병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독일공산당은 이후 浮沈을 계속하다가 1956년에 위헌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 4) 1927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州에서 한 구두회사 사원이 강도에게 1만 5천 달러를 빼앗긴 후 피살되었다. 이탈리아계 노동운동가였던 사코와 반제티는 외국인·무신론자·무정부주의자라는 점 때문에 州 경찰에 의해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 하버드대 총장 등 저명 인사들이 나서서 변호하고 재심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코와 반제티에 대한 사형은 1927년 8월 22일에 집행되었다. 이 사건을 사코 반제티 사건이라 부른다.

는 電氣'를 사용한 것은 더욱더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가 이 시에서 시종일관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르주아지의 ××—

1918

이백만의 프롤레타리아 '웰탄' 요새에서 ××한
그 놈들의 ×× 행위는 惡虐한 수단은
'스파르타키스트'의 용감한 투사
우리들의 '칼', '로자'를 빼앗았다
혁명가의 묘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강철 같은 우리의 전열은
×人者—그들의 暴虐도 궤멸케 하지를 못하였다

(……)

그러나

인류의 범죄자
역사의 도살자인
아메리카—부르주아의 정부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지
세계 무산자의 최대의 동무
사코, 반제타의 목숨을 빼앗았다
電氣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發電하는 電氣로)

그러나

제2인터내셔널은
드디어 양 동지 혁명 아메리카 위원회의 전 세계 노동자의 제너럴 스트라
이크의 요망을 모반하였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힘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조직이 아니다
롬펜 인텔리겐차—의 허울좋은 도피굴이다

(……)

폭풍우다 ××이다
 우리들의 진격하는 戰列을 향하여 두 동지는 외치지 않느냐
 세계의 동지야—
 1927—리아
 ××에 대하기를 ××으로
 우리들은 동무와 같이 용감하게 전장으로 가자
 —「曇—1927」— '사코·반제티의 命日에' 에서

부제인 '사코 반제티 命日에'를 그대로 믿는다면, 이 시를 쓴 정확한 날짜는 1927년 8월 22일이 된다. 이 날에 사코와 반제티가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운동』 창간호에 발표된 이 시는 임화가 쓴 최초의 프로시이며, 동시에 다다이즘 경향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향의 출발점에 놓이는 시이다.

독자가 이 시에서 당장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계급의식의 국제적 연대성이다. 그것은, 이 시의 등장인물인 사코와 반제티가 둘다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청년들이라는 점, 그들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다가 살인강도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나중에 처형된다는 점, 이 시의 소재인 두 혁명 전사의 죽음이 미국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독자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투쟁상을 알려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임화는 이 시를 쓴 이후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자본주의사회에 재한 문학운동의 전개경향」 「분화와 전개—목적의식 문학론에 서론적 도입」 등의 글을 쓰는 한편, 「착각적 문예이론—金華山 씨의 愚論 검토」를 통해 그 무렵까지 같은 프로문학의 갈래에 속한 아나키즘적 경향에 대해 공격을 가한 바도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조선일보에 실린 「一人一文」에서 그는 계급투쟁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⁵⁾

임화의 의도는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서두에서부터 1919년에 처형된 독일의 혁명 지도자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죽음이 제시되고 있는 점, 사코와 반제티의 목숨을 빼앗은 방식이

5) 김용직, 『임화문학 연구』(세계사, 1991), p. 261.

‘電氣로—(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하는 전기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범죄자·도살자·강도 등 즉각적으로 흥분을 유도하는 어휘를 동원하고 나서 마지막에 ‘폭풍우다 ××이다/우리들의 진격하는 戰列을 향하여 두 동지는 외치지 않느냐/세계의 동지야—/1927—리아/××에 대하기를 ××으로/우리들은 동무와 같이 용감하게 전장으로 가자’라고 한 점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와 함께 제2인터내셔널⁶⁾은 이 시에서 ‘드디어 양 동지 혁명 아메리카 위원회의 전 세계 노동자의 제너럴 스트라이크의 요망을 모반하였다/그들은 이미 우리의 힘이 아니다/프롤레타리아의 조직이 아니다/롬펜 인텔리겐차—의 허울좋은 도피굴이다’에서와 같이 매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⁷⁾이 제2인터내셔널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배신자

6) “제2인터내셔널(International Congress of Socialists, 1889~1914)은 19세기 말의 경제 공황과 사회주의 정당의 형성을 배경으로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일 사회 민주당이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무정부주의를 배제했다.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메이 데이를 정하여 시행했고,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전개를 확대하는 데에도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세력의 확대와 동시에 도리어 진보적인 성격은 약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의 위협도가 높아지자, 1904년의 시투트가르트 대회 이후에 전쟁 반대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내부 혼란이 일어나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닌,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참전함으로써 국제적인 결합이 무너져 결국은 해체되었다. 대전 후 1920년에 재건되어 1923년 제2반(半)인터내셔널과 합동, 사회주의 노동인터내셔널로 발전하였으나, 제3인터내셔널에 압도되어 국제적인 세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조의설 편, 『세계사 대사전』(민중서관, 1976), p. 261.]

7) “제3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 Komintern, 1919. 3~1943. 5)은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후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한 레닌 등의 주도로 모스크바에 30개국의 공산당과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워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 민주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배제함과 동시에, 세계 혁명의 제일선으로서 프로판테른과 각국의 공산당을 지도하였는데,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농후했다. 1920년 제2차 대회에서 레닌의 「농업 및 식민지 문제」의 태제를 채택했고, 1928년 제6차 대회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대한 이른바 공산당의 무장을 결의했으며, 1935년 제7차 대회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노동자의 통일전선·인민전선 운동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독·소 전쟁의 발발과 함께 연합국의 전쟁 협력에 장애가 되어 해산되었다.”(위의 글, 위의 책.)

라고 비난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임화가 취하고 있는 노선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산하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혁명 노선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점은 임화가 1926년 12월에 카프에 가입하고, 또 1927년부터 임화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蠶-1927」의 소재는 임화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아니라, 짙막한 신문 기사 내용에 불과하다. 그것은 프로시의 성격을 증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시의 소재라고 할 수 없다. 투쟁을 앞세우는 프로시의 강렬한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쟁의 의도를 전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식인의 관념성이 말끔히 청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연보에 의하면 「우리오빠와 화로」는 임화의 시들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네거리의 순이」,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어머니」, 「병감에서 죽은 녀석」 등과 함께 그의 나이 21세가 되는 해인 1929년에 발표되었다. 김기진은 「단편서사시의 길로」에서 이 시를 '성장하는 ×××××의 시로서 근래에 드문佳作'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는 의미가 불투명한 부분, 무의미하게 수사가 증첩된 부분 등 비판을 받아야 할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골격이 되는 사건이 현실적·실제적이고 오빠를 붙드는 누이동생의 감정이 공상적·과정적이지 아니며 현실·분위기·감정파악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정서가 전파되는 동시에 감격으로 가득찬 하나의 소설적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김기진은 프로 시인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첫째, 소재가 사건적·소설적이되 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추리어 가지고 적당하게 압축하여 사건의 내용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는 극히 인상적으로 선명·간결하게 만들기에 힘쓸 것, 둘째, 문장은 소설적으로 늘리고 둔해도 안되지만 연마조탁할 필요는 없고 노동자들이 낭독하는 데에 호홉이 편하도록 용어는 소박·생경하고 '된 그대로의 말' 일 것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 시는 고평될 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진은 이

시를, 단편 서사시의 형식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작품 예로 들고 있어서 당시에 바람직하게 여겨지던 프로시의 형식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⁸⁾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 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 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火)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구 저하구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가 나란히 걸렸
어요

오빠……

저는요 저는요 잘 알았어요

왜—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실 그 날 밤에
연거푸 말는 께련을 새 개씩이나 피우시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잠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나—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 날만

말 한 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 속을 메워 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정을 향하여 기어올라가던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의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첫소리 마루를 밟는 거치른 구두소리와 함께—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8) 김병택, 『한국 현대시인론』(국학자료원, 1995), p. 237.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
배 연기에 싸 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製絲機를 떠나서 백 장에 일 전짜리 封筒에 손톱을 뚫어뜨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멍을 내쫓겨 封筒 꿈무늬를 뚫습니다
지금—만국 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을고 있습니다

오빠—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 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
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 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火)젓같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굳센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싫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
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
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 밤을 새워 이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
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동생

—「우리 오빠와 화로」 전문

이 시의 등장인물은 누이, 누이의 오빠, 그리고 오빠가 '피오닐',⁹⁾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누이의 동생 영남이다. 누이가 화자이기 때문에, 오빠와 영남이는 화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 문지방을 때리는 쇠소리, 마루를 밟는 거친 구두소리와 함께 오빠가 어디론가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 후 세상은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누이와 영남이는 공장에서 쫓겨나 백장에 일전을 받는 봉투 붙이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그렇게 아끼던 거북 무늬 질화로가 깨어진다. 그러나 누이는 오빠의 친구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위안을 삼으며 힘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투쟁의식이 이 시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누이가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빠의 투쟁의식을 지칭한 것이다. 그래서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누이는 그러한 오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빠에게 차입할 솜옷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봉투 이만 장을 붙인다. 이 시의 등장 인물은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지닌 노동사상과 투쟁의식은 매우 뚜렷하다. 누이는 투쟁의식으로 무장된 오빠와 오빠 친구들을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존경한다. 그것은 물론 단순한 동지의식과 구별된다.

핵심적 소재인 화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의 하나는 가족 중심의 시각에서 경제적 생활의 파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국권의 상실을 상징하는

9) 영어의 pioneer(개척자)에 해당하는 러시아말로, '공산소년단원(9세~14세)을 일컫기도 한다. [김외곤 편, 『임화 전집·1』(박이정, 2000), P. 49]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지금은 화(火)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구 저하구처럼' 과 '화로는 깨어져도 화(火)젓갈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에서 보듯이 화젓가락이 남아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오빠가 잡혀갔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있다는 해석과, 국권은 상실되었지만 민족의식은 이렇게 살아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시에는 투쟁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의 투쟁의식이 「曇-1927」에서 보다 더욱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투쟁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시의 구조를 흔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 시는 실제로 그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의 미학적 측면과 이데올로기 측면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충돌로 이 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Ⅲ. 계급의식과 시의 미학

한 편의 시가 계급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물질주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므로 계속 시와 사회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논의는 예술을 향하는 쪽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하다. 아무리 계급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시는 『조선지광』지 1929년 1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나중에는 1931년에 간행된 『카프 시인집』과 1938년에 간행된 『현해탄』에 각각 수록

10) 김재홍, 「낭만과 프로시인, 임화」 『카프시인 비평』(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161. 참조.

되었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나?

눈바람 찬 불쌍한 도시 종로 복판에 순이야!
너와 나는 지나간 꽃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
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

(……)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연인아!
생각해보아라,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에 보내던 그 여원 손가락으로
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사내도 네 커다란 오빠들……
남은 것이라고는 때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오오, 눈보라는 '트럭' 처럼 길거리를 휘몰아간다.

자 좋다, 바로 종로 네거리가 예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
네 사내를 위하여,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하여……
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된 청춘이 아니냐?

—「네거리의 순이」에서

우선 이 시의 등장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화자인 오빠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오빠는 종로 네거리에 있는 누이동생 순이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점, '이 믿지 못할 얼굴 하얀 오빠'라는 점에서 보면 실천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누이동생 순이는 사랑하는 청년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근로 여성이다. 청년은 이 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라든가 '마음을 맡길 믿음성 있는 이 곳 청년'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은 금방 확인된다. 그러나 그 청년은 '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에 보내던 그 여원 손가락으로/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에서 보듯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누이동생과 청년이 겪고 있는 수난 쪽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등장하는 세 인물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오빠와 누이동생 순이는 어머니마저 잃은 고아이며 그래서 오누이는 노동할 수밖에 없다. 청년은 “골목 뒤에서 중얼대고 일터에서 충성되던”과 “꺼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파업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가 지니고 있는 계급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이 구절 속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격적인 계급의식과는 크게 다르다. 그것은 계급의식이 아닌, 계급의식의 이전 단계라고 해야 할 정도로 미약하다. 화자인 오빠가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나?'고 외치고, 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시의 표현들이 처음 발표될 당시와 다르게 많이 약화된 것은 1938년에 시집 『현해탄』을 발간할 당시에 검열이 심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시의 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근로하는 청년'이 시 전체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인 오빠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저하게 시의 호소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의 계급성은 외적 요소이면서도 내적 요소와 다름없이 소위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고 있다. 이 시의 계급성은 현실 상황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만일 그것이 소멸해 버리면 이 시 자체가 전부 소멸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의 유기성은 두드러지다. 여기에 中野重治¹¹⁾의 「비 내리는 품천역」¹²⁾이 관련되었다는 문학사적 사실을 덧붙인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
- 11) 中野重治(1902~1979)는 동경대학 독문과를 졸업했고, 일본 NAPF의 간부였으며, 시인·소설가·문학이론가로 활약했다. 시집에 『中野重治 시집』이 있다.
 - 12) 한글로 번역되어 『무산자』(1925. 5)에 실린 중앙중치의 「비내리는 품천역」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내리는 품천역
—×××기념으로 李北滿 金浩永에게

辛이여 잘 가거라
鎭이여 잘 가거라
그대들은 비오는 品川驛에서 차에 오르는구나

李여 잘 가거라
또 한 분의 李여 잘 가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들의 나라의 시냇물은 겨울 추위에 얼어붙고
그대들의 ×× 반항하는 마음은 떠나는 일순에 굳게 얼어
바다는 비에 젖어서 어두워가는 저녁에 파도성을 높이고
비둘기는 비에 젖어서 연기를 헤치고 창고 지붕 위에서 날아다닌다
그대들은 비에 젖어 그대들을 쫓아내는 일본의 ××을 생각한다
그대들은 비에 젖어서 그대들을 쫓아내는 그의 머리털 그의 좁은 이마 그의 안경
그의 수염 그의 보기 싫은 곱사 등줄기를 눈앞에 그려본다

비는 줄줄 내리는데 새파란 시그널은 올라간다
비는 줄줄 내리는데 그대들의 검은 눈동자가 번쩍인다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도크'는 비에 젖었고
 가슴은 떠나가는 서러움과 내어쫓기는 분함에 불이 타는데
 오오 사랑하는 항구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난간은 비에 젖어 있다

“그나마도 天氣가 좋은 날이었더라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너만의 불쌍한 말이다
 네의 나라는 비가 와서 이 '도크'가 떠나가거나
 불쌍한 네가 울고 울어서 좁다란 목이 미어지거나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를 머물러 두지 않으리라
 불쌍한 항구의 계집애야—울지도 말아라
 추방이란 標를 등에다 지고 크나큰 이 부두를 나오는 네의 사나이도 모르
 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 이 길로 돌아가면

그대들의 검은 그림자는 개찰구를 지나
 그대들의 하얀 옷자락은 침침한 플랫폼에 흘날려
 시그널은 색을 변하고
 그대들은 차에 올라탄다
 그대들은 출발하는구나
 그대들은 떠나가는구나

오오!

조선의 사나이요 계집아인 그대들
 머리끝 뼈끝까지 찢찢한 동무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잡이요 뒷군
 가거든 그 딱딱하고 두터운 번질번질한 얼음장을 두드려 깨쳐라
 오래 동안 갈혀있던 물로 분방한 홍수를 지어라
 그리고 또다시
 해협을 건너뛰어 닥쳐오너라
 고베 神戸 나고야 名古屋를 지나 동경에 달려들어
 그의 신변에 육박하고 그의 면전에 나타나
 X를 사로X어 그의 X살을 움켜잡고
 그의 X떡 바로 거기에다 낫X을 겨누고
 만신의 뛰는 피에
 뜨거운 북X의 환희 속에서
 울어라! 울어라!

(.....)

나야 좃기어 나가지마는 그 젊은 용감한 녀석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쇠창살 밑에 앉아 있지를 앓을 게며
네가 있는 공장엔 어머니 누나가 그리워 우는 北陸의 幼年工이 있지 않으나
너는 그 녀석들의 옷을 빨아야 하고
너는 그 어린 것들을 네 가슴에 안아 주어야 하지를 앓겠느냐—
'가요'야! '가요'야! 너는 들어가야 한다
별써 '사이렌'은 세 번이나 울고
검정 옷은 내 손을 몇 번이나 잡아당겼다
인제는 가야 한다 너도 가야 하고 나도 가야 한다

(.....)

오오 그러면 사랑하는 항구의 계집애야
너는 그냥 나를 떠나 보내는 서러움
사랑하는 사나이를 이별하는 작은 생각에 주저않을 네가 아니다
네 사랑하는 나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를 앓는가
그 녀석들은 그것도 모르고 간혀 있지를 앓는가 이 생각으로 이 분한 사
실로

비둘기같은 네 가슴에 발강게 몰들어라
그리하여 하얀 네 살이 뜨거워서 못 견딜 때
그것을 그대로 그 얼굴에다 그 대가리에다 마음껏 매다쳐 버리어라

그러면 그때면 지금은 가는 나도 별써 부산, 동경을 거쳐 동무와 같이 '요
코하마'를 왔을 때다

그리하여 오래 동안 서러웠던 생각 분한 생각에
피곤한 네 귀여운 머리를
내 가슴에 파묻고 울어도 보아라 웃어도 보아라
항구의 나의 계집애야!
그만 '도크'를 뛰어오지 말아라

비는 연한 네 등에 내리우고 바람은 네 우산에 불고 있다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에서

임화의 이 시가 일본 시인 中野重治의 「비내리는 품천역」에 대한 화답

시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중야중치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쫓겨가는 조선인과 그를 보내는 일본인인데, 임화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도 쫓겨나는 조선인 청년과 배웅나온 일본인 여성이다. 그리고 이 시와 「비내리는 품천역」은 공통적으로 이별을 소재로 삼고 있다. 발표 시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두 시인의 시 사이에 놓이는 화답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중야중치의 시는 일본의 종합지 『개조』(1929. 2)에 먼저 발표되었고 얼마 후 동경에서 발행되던 『무산자』에 번역, 게재되었다. 『개조』 발표 때 워낙 삭제될 많이 당해서 뒷날 한글 번역 텍스트를 참조에서 복원했다는 것인데 최초의 텍스트와 뒷날 『중야중치 시집』에 수록된 텍스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후반부가 많이 달라지고 간결해졌으며 한결 정연하다. 임화가 「우산받은 요꼬하마의 부두」를 끝맺을 때 분명히 의존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행, “그리고 또다시/해협을 건너뛰어 닥쳐 오나라/고베[神戸]나고야[名古屋]를 지나 동경에 달려들어/그의 신변에 육박하고 그의 면전에 나타나/×를 사로×어 그의 ×살을 움켜잡고/그의 ×떡 바로 거기에다 낫×을 겨누고/만신의 뛰는 피에/뜨거운 복×의 환희 속에서/울어라! 웃어라!”는 삭제되고 “잘 가거라/보복의 환희에 울고 웃을 날까지”로 간략히 끝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30년대 이후의 역사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년대 말에 중야중치를 비롯한 과격파 지식인들이 꿈꾸던 희망적 관측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¹³⁾

남성인 화자가 여성을 부르는 것과 일본 여성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남성인 화자가 일본인 여성을 부르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시에서 그 남성이 조선인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인 여성은 그 청년의 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발생한다. 임화는 이 시에서 근로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다. 그 일본인 여성이 단순한 ‘항구의 계집애’가 아니라 그 청

13) 유종호, 「사회주의 시인의 탄생」 『다시 읽는 한국 시인』(문학동네, 2002), pp. 38~39.

년과 동지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점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인상적인 표현 '비둘기 같은 네 가슴'은 물론 그 청년을 사랑하는 일본인 여성의 그것이다. 그녀의 가슴이 빨강게 물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계급의식, 곧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과 분노를 그러한 빛깔로 심상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노와 의식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얼굴' 또는 '대가리'이다. 그것은 천황으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의식한 직접적 표현이다. 그러한 분노와 반항의식은 그 다음 연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화자는 여기서 일제의 패퇴를 예견하고 그때 추방된 자신도 당당하게 다시 재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네거리의 순이」 이하 몇 개의 작품과 함께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는 임화의 대표작이며 카프의 성공시로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 작품의 제작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중치의 시 「비내리는 품천역」과 대비되는 경우 더욱더 그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난다.¹⁴⁾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중앙중치의 「비내리는 품천역」 때문에 이 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내리는 품천역」으로 해서 이 시는 지식 계급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문인들의 의식구조가 어느 정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는 '그것을 그대로 그 얼굴에다 그 대가리에다 마음껏 매다쳐 버려라'에서 보듯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IV. 저항의식과 현실 극복

「병감에서 죽은 녀석」을 굳이 다른 시와 관련시켜 말한다면, 그 대상이

14) 김용직, 앞의 책, pp. 47~48.

되는 시는 단연 「蠶-1927」일 것이다. 「蠶-1927」의 화자가 목청을 크게 높이고 있듯이, 이 시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상이한 점이 있다면, 「蠶-1927」이 강한 투쟁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비해, 이 시는 강한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는 ‘조그만 너 하날 잡으러 몇 놈 몇 십 놈’이 온 것은 ‘그만큼 놈들은 너를 무서워하였고/우리들을 무서워’ 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저항성이야말로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최대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긴 짧은 날을 너와 나는 ××을 의논하여 왔고 꿈같은 옅은 생각이 우리
 앞을 막을 때면 ‘일리치 레닌’의 쇠 같은 얼굴을 바라며
 밀빠진 주머니에 두 손을 고쳐 찌르고 또 다시 나가지를 앉았던가—
 그 날도—
 그 날도 너는 여름의 밤이 아직도 안 새었을 때
 오는 날에 계획의 실행 앞에서 우리는 지난 그 때를 이야기하였었다.

일찍이 해가 1920년이었을 때 3월
 우리들의 사랑하는 용감한 내 나라의 백성들이
 ××한 제국주의 ××과 자유를 싸웠을 때
 어떻게 꿈에도 못 잊을 사랑하는 동포가 ×들의 毒手에 넘어졌던가를 말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평화하여야 할 녹색의 고운 都邑 수원에서 한꺼번에 사랑하는 동포 팔백
 구백을 ×에 살라 ×인 놈도
 오! 미운! 그 놈! 그 놈들이었고
 수도 경성에서 대도상에서 귀여운 젊은 여자의 하얀 가슴에다 ×을 박은
 놈도!
 근로하는 노동자 농민을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하려는 우리들의 전위 ××
 젊은 ××을 모든 ××한 야수적 방법으로 ×이고 ×間한 놈도
 그 놈! 그 놈들이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쌍이고 쌍인 그 분한의 보복을 위하여 그 날의 실행될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더냐?

그러나! 지금은
이러던 너도 병감에서 죽었구나! 내가 병감에서 죽었어—

오! 내 나라의 용감한 사나이야! 번개 같은 사나이야—
그 날 놈들은 말굽 밑에다 알 수 없는 슬픔과 분한애 조그만 가슴을 덜렁
대고 있던 학교의 제집애들을 짓밟고
번개같이 뼈라를 뿌리고 지나가는 청년 용감한 우리들의 학생들을 ×대구
리로 거꾸러트리지를 앉았더냐
놈들은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 조그만 너 하나를 잡으려 몇 놈이 몇십 놈이 왔었던 것이냐
그만큼 놈들은 너를 무서워하였고
우리들을 무서워하였던 것이다.
오! 귀여운 이 녀석아!
네가 사람을 죽이었기 때문에 놈들은 너를 ×인 것이 아니다
놈들은 너를 미워하였고 놈들은 너를 없애려는 데 모든 세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병감에서 ×었다
그러나 용감한 너와 또 젊은 용감한 청년 학생인 동무들이 흘린 ×에 젖은
6월 10일은 우리들 조선의 프롤레타리아의 가슴에서 스러지지는 않으리라
봄이 엷은 삼월에 우리들의 山宣이 ×었고
똑같은 이 달에 渡政도 일본 노동자 농민의 원한 속에 갔는데
오! 또 이 녀석아!
병감에서 네가 ×다니—

그러나—
귀여운 이 녀석아! 잘 가거라
우리들의 ×××은 미친 개처럼 싸지르는 백색 태러들의 독수를 짓밟고
더 멀리 더 굳세이 앞으로 나가리라
더 무서우게 더 무서우게 죽음을 안고 싸우리안다고!
—「病監에서 죽은 녀석」— '×의 6월 10일에' 전문

소재로 삼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3·1운동과 6·10만세 운동이다. 이 시는 『무산자』 3권 2호에 수록되었다. 『무산자』 3권 2호는 특집으로 1926년의 6·10만세 운동을 기획했고, 임화는 거기에 6·10만세 운동 때에 감

육에서 숨진 동지를 애도하는 시를 썼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는 저항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의 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蠶-1927」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생경함과 과격함이 이 시에는 매우 뚜렷하다.

우선 저항 대상에 대한 지칭도 '사랑하는 동포 팔백 구백을 X에 살라 X인 놈도/오! 미운! 그 놈! 그 놈들이었고/수도 경성에서 대도상에서 귀여운 젊은 여자의 하얀 가슴에다 X을 박은 놈도!/근로하는 노동자 농민을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하려는 우리들의 전위 XX 젊은 XX을 모든 XX한 야수적 방법으로 X이고 X問한 놈도/그 놈! 그 놈들이었다'에서 보듯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당연히 화자는 '쌓이고 쌓인 그 분한의 보복을 위하여 그 날의 실행될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이란 '번개같이 뼈라를 뿌리'는 것인데, '놈'들은 '우리'들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친구인 '너'는 병감에서 죽었다. 그러나 화자는 '우리들의 XXX은 미친 개처럼 싸지르는 백색 테러들의 독수를 짓밟고/더 멀리 더 굳세이 앞으로 나가리라/더 무서움게 더 무서움게 죽음을 안고 싸우리안다고!' 처럼 저항의지를 불태운다.

임화의 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독자는 다음 시에 들어있는 저항적이고 냉정한 표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독자는 임화가, 순수 서정시의 '순수'와 '서정'을 철저히 배척하고,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실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시에서 그는 역사적 사건(3·1운동, 6·10만세운동)을 환기시키면서 그러한 의도를 온전히 구체화하고 있다.

대양과 같이 푸른 잎새를,
 그 젊은 守護卒 滿山の 草花를,
 돌바위 굳은 땅속에 파묻은 바람은,
 이제 고아인 벌거벗은 가지 위에 소리치고 있다.
 청춘에 빛나던 저 여름 저녁 하늘의 금빛 별들도

幽冥의 하늘 저쪽에 흩어지고,
손톱같이 여윈 단 한 개의 초생달,
그것조차 지금은 '레테'의 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

이 암흑, 폭풍, 雷鳴의 거대한 고통이
밀집한 교목의 대오와 그 한 개 한 개의 영웅인 청년, 수목의 육체 가운데
꺾고 검은 한 테의 연륜을 더 돌려주고 가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느냐?

사는 것을.....

너는 아파하느냐?

청년이 우리들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도표인 '나이'가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을!

영리한 새여—아직도 양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조그만 심장이며!
블록 내민 그 귀여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쳐라!

오라! 어둠이여! 울어라! 폭풍이여!
노호하라! 死와 암흑의 '마르세이유'여!

그렇지 않은가!

누구가 대지로부터 스며오르는 생명인 봄의 樹液을
누구가 청년의 가슴 속에 자라나는 영웅의 정신을 죽음으로써 막겠는가
암흑인가? 폭풍인가? 雷鳴인가?

—「암흑의 정신」에서

19면 82행으로 된 장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뚜렷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이 시가 발표된 1934년 10월쯤에 이르러 임화의 시는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단계에서 내면세계를 지향하는 단계로 바뀌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이른바 시 세계의 변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가 다른 서정시인들의 그것처럼 서정성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 내면세계에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과 결부되는 저항성이 들어 있는 것이다.

암흑의 분위기가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임화를 중심으로 한 당시 문단의 변화와 개인적인 생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31년의 카프 제1차 검거 때에 잠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고, 카프 조직 내의 내분에 따라 서기장의 위치에 있던 그는 제2차 검거 때에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며, 1935년에는 그 자신이 직접 카프 해산계를 제출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첫 부인과 이혼하고 이현옥(필명 지하연)과 재혼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을 심한 고향을 앓는 등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기는 심각한 것이었다.

임화는 이 시에서 암흑과 같은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저항의식과 극복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다. 맨 마지막 연인 “그렇지 않은가!/누구가 대지로 부터 스며오르는 생명인 봄의 樹液을/누구가 청년의 가슴속에 자라나는 영웅의 정신을 죽음으로써 막겠는가/암흑인가? 폭풍인가? 雷鳴인가?”에 그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징을 하나 더 든다면 이 시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프 시인집』(1931)에 수록된 다수의 시들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시의 그러한 형식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처럼 편지 형식을 취하게 된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자신의 시에 들어 있는 지나치게 강한 투쟁성·저항성·계급성이 독자와의 거리를 멀게 했던 이유임을 깨달은 후에,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독자에게 가깝게 다가서고자 하는 임화 자신의 의도와 관련된다.

V. 에필로그

지금까지 임화 시에 나타난 현실의식을 투쟁의식과 노동운동, 계급의식과 시의 미학, 저항의식과 현실 극복 등 세 가지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1927」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서두에서부터 1919년에 처형된 독일의 혁명 지도자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죽음이 제시되고 있는 점, 사코와 반제티의 목숨을 빼앗은 방식이 '電氣로—(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하는 전기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범죄자·도살자·강도 등 즉각적으로 흥분을 유도하는 어휘를 동원하고나서 마지막에 '우리들은 동무와 같이 용감하게 전장으로 가자'라고 한 점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오빠와 화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투쟁의식이다. 누이가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빠의 투쟁의식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누이는 그러한 오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빠에게 차입할 솜옷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봉투 이만 장을 붙인다. 그들이 지닌 노동사상과 투쟁의식은 매우 뚜렷하다. 누이는 투쟁의식으로 무장된 오빠와 오빠 친구들을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존경한다. 그것은 물론 단순한 동지 의식과는 구별된다.

둘째, 「네거리의 순이」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오빠와 누이동생 순이는 어머니마저 잃은 고아이며, 그래서 오누이는 노동할 수밖에 없다. 청년은 "골목 뒤에서 증열대고 일터에서 충성되던"과 "꺼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파업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 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이 시가 지니고 있는 계급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약화된 계급의식이다. 그것은 이 시에서 화자인 오빠가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냐?'고 외치고, 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하는 대목을 옆두에 두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시가 처음 발표될 당시와 다르게 개작을 거치면서 표현의 강도가 많이 약화된 것은 1938년에 시집 『현해탄』을 발간할 당시에 검열이 심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의 계급성은 분명히 외적 요소이면서도, 이 시에서는 내적 요소나 다름없다. 그것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소위 이데올로기의 미학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中野重治의 「비내리는 품천역」이 관련되었다는 문학사적 사실이 덧붙여진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가 일본 시인 중야중치의 「비내리는 품천역」에 대한 화답시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중야중치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쫓겨가는 조선인과 그를 보내는 일본인인데, 임화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도 쫓겨나는 조선인 청년과 배웅나온 일본인 여성이다. 그리고 이 시와 「비내리는 품천역」은 공통적으로 이별을 소재로 삼고 있다. 발표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가 「비내리는 품천역」에 대한 화답시일 가능성은 많다.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에서 '비둘기같은 네 가슴'은 물론 그 청년을 사랑하는 일본인 여성의 그것이다. 그녀의 가슴이 빨갛게 물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계급의식, 곧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과 분노를 그러한 빛깔로 심상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노와 의식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얼굴' 또는 '대가리'이다. 그것은 천황으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의식한 직접적 표현이다. 이런 분노와 반항의식은 그 다음 연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화자는 여기서 일제의 패퇴를 예견하고 그 때 추방된 자신도 당당하게 다시 제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네거리의 순이」 이하 몇 개의 작품과 함께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는 임화의 대표작이며 카프의 성공시로 일컬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의 제작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중야중치의 시 「비내리는 품천역」과 대비되는 경우 더욱더 그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셋째, 「병감에서 죽은 녀석」을 굳이 다른 시와 관련시켜 말한다면, 대상이 되는 시는 단연 「담-1927」일 것이다. 「담-1927」의 화자가 목청을 크게

높이고 있듯이, 이 시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상이한 점이 있다면, 『蠶-1927』이 강한 투쟁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비해, 이 시는 강한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의 구체적인 예는 ‘조그만 너 하날 잡으러 몇 놈 몇 십 놈’이 온 것은 ‘그만큼 놈들은 너를 무서워하였고/우리들을 무서워’ 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최대 근거는 상대방 지니고 있는 저항성이기 때문이다.

「병감에서 죽은 녀석」의 소재는 3·1운동과 6·10만세 운동이다. 이 시는 『무산자』 3권 2호에 발표되었다. 『무산자』 3권 2호는 1926년의 6·10만세 운동을 특집으로 기획했고, 임화는 여기에 6·10 만세 운동 때에 감옥에서 숨진 동지를 애도하는 시를 썼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는 저항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상대적으로 시의 미학적 성취 쪽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담-1927」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생경함과 과격함이 이 시에는 들어 있다.

「병감에서 죽은 녀석」은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을 담고 있다. 당연히 화자는 ‘쌓이고 쌓인 그 분한의 보복을 위하여 그 날의 실행될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이란 ‘번개같이 뼈라를 뿌리’는 것인데, ‘놈’들은 ‘우리’들을 무서워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친구인 ‘너’는 병감에서 죽었다. 그러나 화자는 ‘멀리 더 굳세이 앞으로 나가리라/더 무서웁게 더 무서웁게 죽음을 안고 싸우리안다고!’ 처럼 저항의지를 불태운다.

「암흑의 정신」은 19연 82행으로 된 장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제시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것은 이 시가 발표된 1934년 10월쯤에 이르러 임화의 시는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단계에서 내면세계를 지향하는 단계로 바뀌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이른바 시 세계의 변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가 다른 서정시인들의 그것처럼 온전히 서정성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 내면세계에는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과 결부되는 저항성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시는 암흑과 같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극복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